

APEC CEO 서밋

포스코-호주, 친환경 공급망 강화 수소철강·이차전지로 미래 선도

아태경제협력체서 비전 제시
한·호주 연대로 공급망 안정 모색
청정에너지·핵심자원 협력 본격화
경제 넘어 사회적 회복력 강화 강조

포스코그룹이 한국·호주 간 공급망 협력을 지속한다. 양국 간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회복탄력적 성장 모델로 주목받고 있다. 이날 방한중인 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호주 정상으로는 22년만에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았다.

장 회장은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CEO 서밋' 2일자 행사에서 기조연설을 통해 "다자간 공급망 협력은 아시아·태평양 지역의 주요 경제 주체들이 지속가능한 미래 공급망 건설을 위해 해법을 모색하는 것으로, 한국과 호주 간 협력은 이러한 방향성을 가장 잘 보여주는 사례"라고 밝혔다.

장 회장은 포스코그룹이 호주와 추진 중인 주요 협력 분야로 ▲철강 산업의 저탄소 전환 ▲이차전지 원료 공급망 확보 ▲청정에너지 생태계 조성을 제시했다.

그는 "포항제철소에서 준비 중인 하이렉스(HyREX) 공정은 석탄 대신 수소를 활용해 CO2 배출을 획기적으로 줄이는 기술로, 호주의 풍부한 재생에너지에 기반한 청정 수소를 사용해 탄소저감 철강제품을 생산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장인화 포스코 회장이 30일 오전 경북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최고경영자(CEO) 서밋의 '탄력적이고 지속가능한 글로벌 공급망 구축' 세션에서 기조연설을 하고 있다. /포스코

이차전지 원료 분야에서는 호주 광산에서 채굴된 스포듀민을 들여와 지난해부터 국내에서 수산화리튬을 생산 중이다. 장 회장은 "기존 화석연료 중심의 협력에서 리튬·니켈·희토류 등 미래 핵심 자원으로 확장되며 질적 변화를 이끌고 있다"고 말했다.

청정에너지 부문에서는 포스코인터내셔널이 2022년 호주 한콕에너지와 함께 천연가스 개발·생산기업 세넥스에너지를 공동 인수했으며 포스코홀딩스와 포스코이앤씨도 호주 내 수소 생산 혁신 기업과 협력을 확대하고 있다.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포스코 포항제철소를 찾아 양국 협력 관계를 한층 강화했다. 앨버니지 총리는 포항제철소 원료부두를 방문해 호주 철광석과 원료탄이 실제 활용되는 현장을 직접 살펴보고, 하이렉스 공정에 대한 설명을 들었다.

포스코그룹은 지난 1971년 호주 철광석 구매를 시작해 현재까지 약 15억 톤 이상의 호주산 철광석과 원료탄을 사용해 왔다. 이는 한·호 자원·철강 산업 협력의 상징적 사례로 손꼽힌다.

앨버니지 총리는 "호주는 세계 최고 수준의 자원 보유국으로, 핵심 광물 투자를 통해 산업을 성장시킬 수 있는 무한한 기회"의 땅이다. 호주의 풍부한 자원은 세계 경제를 움직이는 원동력이 될 것이며, 한국과의 협력을 지속 확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장 회장은 총리와의 면담에서 "호주는 철강을 넘어 이차전지 소재, 에너지 분야까지 미래 성장산업을 함께 개척해 나가는 전략적 동반자"라며, 이번 방문이 양국 간 신뢰를 공고히 하는 마중물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원권희·차현정 기자 wkh@metroseoul.co.kr

현대차, 수소산업 선도전략 공개 탄소중립 향한 글로벌 연대 강화

수소 경제 확산 글로벌 비전 제시
모빌리티 넘어 산업 전반으로 확대
그린수소 생산 기술로 미래 주도

현대자동차그룹이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의 부대 행사인 'APEC CEO 서밋 2025'에서 수소 경제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비전을 제시했다.

30일 경주 예술의전당에서 열린 이번 포럼에는 21개 APEC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 등 1700여 명이 참석했다. 올해 주제는 '연결, 사업, 그 너머(Bridge, Business, Beyond)'로, 수소를 비롯해 인공지능(AI), 디지털, 바이오·헬스, 금융·투자, 지속가능성 등 주요 글로벌 의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이날 현대차그룹은 '수소, 모빌리티를 넘어 사회를 위한 새로운 에너지' 세션을 진행해 수소 사업 현황과 향후 전략을 공유했다.

장재훈 현대차그룹 부회장은 수소위원회 CEO 아바나 제멜코바와의 대담에서 "글로벌 에너지 전환의 중심에는 수소가 있다"며 "수소는 재생에너지의 간헐성을 보완하고 에너지 효율을 높여 탄소중립 실현을 앞당기고 있다"고 말했다.

장 부회장은 1998년 이후 현대차그룹이 축적해 온 수소 기술력과 투자 성과를 소개했다. 현대차그룹은 대형 수소전기트럭 엑시언트를 세계 최초로 양산하고, 수소전기차 전용 모델 판매 세계 1위를 달성하며 기술 리더십을 입증했다.

또 엑시언트 트럭을 아산공장과 평



울산 수소연료전지 신공장 기공식

현대자동차 장재훈 부회장이 30일 오전 울산 북구 현대자동차 수소연료전지 공장부지에서 열린 수소연료전지 공장 기공식에서 환영사를 하고 있다. /뉴시스

택항 간 차량 운송에 활용하고,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협력해 공항 내 수소 인프라 구축을 추진 중이다.

미국에서는 노르칼제로 프로젝트를 통해 30대의 엑시언트 트럭을 운영 중이며, 현대차그룹 메타플랜트 아메리카에서도 21대를 부품 운송에 투입해 친환경 물류 체계를 확장하고 있다.

현대차그룹은 2029년까지 제주도에 5메가와트(MW)급 고분자전해질막(PEM) 수전해 설비를 구축해 그린 수소를 생산할 계획이다. 대규모 실증 사업을 통해 초격차 생산기술을 확보한다는 목표다.

장 부회장은 "현대차그룹은 수소 산업의 지속적 성장 기반인 수소 창출을 위해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며 "지난 30년간 수소 산업에서 수많은 '최초'와 '최고'의 기록을 세웠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

LG디스플레이

4년만에 '흑자전환'

OLED 중심 체질개선 결실

LG디스플레이가 4년만에 연간 흑자 전환에 사실상 성공했다. 유기발광다이오드(OLED) 중심의 사업 체질 개선이 성과로 가시화 되는 모습이다.

LG디스플레이가 올해 3분기 연결기준 매출액 6조9570억원, 영업이익 4310억원을 달성했다고 30일 밝혔다. 3분기까지 누적 매출과 영업이익은 각각 18조6092억원, 3485억을 기록했다. 이로써 4년만에 연간 흑자 전환이 확실시된다. 누적 매출은 전년 동기 대비 LCD TV 사업 종료로 인해 1% 감소했음에도 누적 영업실적은 약 1조원 개선됐다. OLED 중심의 사업구조 고도화 노력이 흑자 전환을 이뤘다는 평가다.

3분기 매출은 전 제품군에서 OLED 패널 출하가 확대되며 전분기 대비 25% 증가했다. 전체 매출 내 OLED 제품 비중은 계절적 성수기에 더해 중소형 OLED 패널의 신제품 출시 효과로 역대 최고 수준인 65%를 기록했다. 제품별 판매 비중(매출 기준)은 TV용 패널 16%, IT용 패널(모니터, 노트북 PC, 태블릿 등) 37%, 모바일용 패널 및 기타 제품 39%, 차량용 패널 8%이다. /차현정 기자

HD현대중공업, 장보고 II 침단화 추진

4689억 규모 성능개량 수주
전투체계·소나 등 최신헌
2033년까지 개량 완료 예정

HD현대중공업이 잠수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을 수주하며 잠수함 분야 축적된 기술력을 인정받게 됐다.

HD현대중공업은 방위사업청과 4689억 원 규모의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3척에 대한 성능개량 체계개발사업 계약을 체결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수주한 성능개량 사업은 10년 이상 노후된 장보고-Ⅱ 잠수함 9척 가운데 3척이다. 전투체계, 예인선배열 소나, 기뢰회피 소나, 부이형 안테나 등 핵심 장비를 최신헌으로 교체한다. HD현대중공업은 앞서 장보고-Ⅰ(209급) 잠수함 성능개량을 수행한 LIG넥스원과 협력해 오는 2033년까지 성능개량을 완료할 계획이다.

214급(배수량 1800톤급) 잠수함은 2007년부터 2020년까지 순차적으로 실전배치된 대한민국 해군의 주력 잠수함이다. HD현대중공업은 독일 외 국가에서는 처음으로 공기불요장치(AIP)가 적용된 214급 잠수함의 선도함인 '순원일함'을 포함해 총 9척 가운데 6척을 건조했다.



HD현대중공업이 건조해 2016년 대한민국 해군에 인도한 장보고-Ⅱ(214급) 잠수함 '윤봉길함'의 시운전 모습. /현대중공업

HD현대중공업은 HD현대미포와의 합병을 추진하고 있다. 이를 통해 특수선 사업 역량을 한층 강화해 향후 함정 사업 분야 경쟁력을 크게 제고할 계획이다.

H주원호 HD현대중공업 합장·중형선 사업부 사장은 "이번 잠수함 성능개량 체계개발 사업 수주는 HD현대중공업의 잠수함 분야 축적된 노하우와 경쟁력을 인정받았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며 "214급 장보고-Ⅱ 잠수함을 장보고-Ⅲ급 수준의 첨단 잠수함으로 업그레이드해 대한민국 해양안보의 핵심 전력으로서의 위상을 공고히 하는데 이바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승용 기자 lsy2665@

현대차, '일렉시오'로 中 전기차 공략

27분 급속충전 탑재한 신차
E-GMP로 승차감·안전성 ↑

현대자동차가 가파른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중국 전기차 시장 공략에 나선다. 현대차는 중국 소비자를 겨냥한 현지 전략형 전기 SUV '일렉시오'를 전격 공개했다고 30일 밝혔다. 일렉시오는 깔끔한 실루엣과 절제된 비율로 구성된 대담하고 고급스러운 디자인을 갖췄으며, 크리스탈 형태의 사각형 헤드램프가 특징이다.

현대차의 전기차 전용 플랫폼 E-GMP를 바탕으로 고급스러운 승차감을 제공하고 뛰어난 내구성의 차체 구조로 안전성도 높였다. 또 88.1kWh 배터리를 탑재해 722km의 1회 충전 시 주행 가능 거리(CLTC 기준)를 달성했고, 약 27분 만에 배터리를 30%에서 80%까지 충전할 수 있다.

차량 내부에는 ▲27인치 4K 대화면 디스플레이 ▲3만:1 명암비를 갖춘 헤드업 디스플레이(HUD) ▲BOSE사의 8스피커 및 현대차 최초로 차세대 몰입형 음향 기술 돌비 애트모스(Dolby Atmos)를 탑재해 몰입감 있는 사용자 경험을 제공한다.



현대차의 중국 현지 전략형 전기 SUV '일렉시오'

또 알렉시오는 패밀리카의 안전성과 활용성을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기능을 적용했다.

먼저 가속 및 감속 시 차량의 반응 속도를 정교하게 제어하는 회생 제동 시스템 '패밀리 브레이크 모드'를 적용해 운전자는 물론, 함께 탑승한 가족 모두의 피로도를 줄인다.

또 차량 내부에 총 46곳의 수납 공간을 마련하고, 기본 506L의 트렁크 공간을 최대 1540L까지 확장 가능하도록 설계해 가족 단위 고객을 위한 실용성을 극대화했다.

측면 커튼 에어백을 포함한 총 9개의 에어백 시스템과 비상 상황에서 자동으로 튀어나오는 도어 핸들 등 첨단 안전 사양도 적용했다. /양성운 기자